

일본 경제 동향_2015년 12월

(2016년 일본경제 전망)

< 목 차 >

I. 일본 경제 지표	1
II. 최근 일본 경제동향 및 전망	2
1. 회복방향의 조정국면	2
2. 무역수지 2개월만에 적자 환원	6
3. 엔저·저금리, 주가는 하락세	9
4. 해외직접투자 큰 폭으로 증가 반전	11
III. 일본의 주요 정책	12
1. 2016년 일본경제 전망	12
IV. 한일 경제관계 분석	17
1. 대일 무역적자 3개월만에 감소	17
2. 3분기 일본인 직접투자 크게 감소	20
V. 참고 자료	21
1. 주요기관 연구보고서	21
2. 주요 경제 일정	23

1. 일본 경제 지표

구 분	2013	2014	2015							
			1/4	2/4	3/4	8월	9월	10월	11월	
경기동향지수(일치지수, 2010=100)	-	-	-	-	-	112.2	112.3	114.3*	-	
GDP증가율(연율,%)	1.6	△0.1	4.4	-0.5	1.0(p)		-		-	
국내투자 (조엔)	민간설비투자	66.0	69.5	20.2	15.8	17.3(p)		-	-	
	공공투자	23.0	24.5	6.8	4.5	5.4(p)		-	-	
해외직접투자(조엔)	13.2	12.6	3.5	3.7	3.6	1.3	1.2	1.6	-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기비	0.4	2.6	△0.3	0.2	0.0	0.0	0.0	0.1	
	전년동기비	0.4	2.6	2.1	0.1	△0.1	△0.1	△0.1	-0.1	
실업률(%)	4.0	3.6	3.5	3.3	3.4	3.4	3.4	3.1	-	
수출(조엔)	69.8	73.1	18.9	18.8	19.0	5.9	6.4	6.5	6.0	
수입(조엔)	81.3	85.9	20.4	19.1	20.0	6.5	6.5	6.4	6.4	
무역수지(조엔)	△11.5	△12.8	△1.4	△0.3	△1.0	△0.6	△0.1	0.1	△0.4	
경상수지(조엔)	3.3	2.6	4.2	3.8	5.0	1.7	1.5	1.4	-	
환율	달러	97.7	105.8	119.1	121.4	122.3	123.2	120.2	120.1	122.5
	원화(100엔)	1,123	996	923.3	905	957	958	986	956	940
금리(10년물,%)	0.72	0.55	0.34	0.40	0.395	0.38	0.36	0.31	0.31	
주가(닛케이)	13,651	15,460	18,226	20,058	19,474	19,919	17,944	18,374	19,582	

주: (p)는 2차 속보치 *는 속보치, 자료: 일본 내각부, 재무성, 총무성, 후생노동성, 한국은행

□ (경기판단) 회복방향의 조정국면

○ '15.10월 경기동향지수(2010년=100)는 114.3으로 전월비 2.0p 상승

□ (소비자물가) 소비자물가상승률 5개월만에 상승

○ '15.10월 전월대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1%

□ (무역수지) 무역수지는 2개월만에 3,797억 엔 적자로 환원

○ '15.11월 수출은 5조 9,814억 엔, 수입은 6조 3,611억 엔

□ (환율) 엔저 진행

○ '15.11월 엔화의 대미달러 환율 평균치는 122.5 엔

* '15.11월 엔화의 대원화 환율 평균치는 100엔당 940원으로 전월비 1.7% 엔저·원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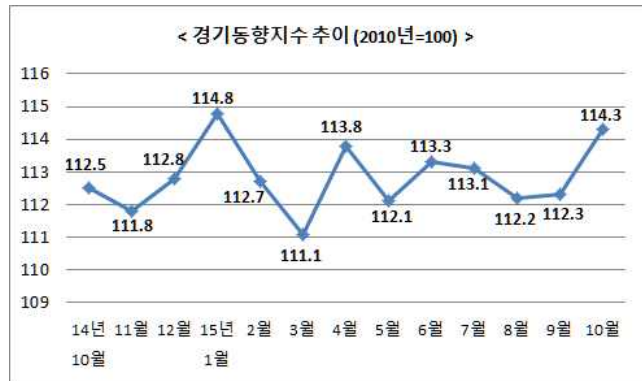
II. 최근 일본 경제동향 및 전망

1. 회복방향의 조정국면

□ (경기기조 판단)

○ 수출·생산·기업마인드의 약세와 함께 일시적인 조정이 거듭되고 있으나, 전반적인 회복세 자체는 이어지고 있음

- 일본 내각부가 12월 7일 발표한 10월 경기동향지수(일치지수)는 114.3으로 전월보다 2.0p 상승



자료 : 내각부

- 소비와 생산 등의 주요 지표가 개선

○ 그러나 일본 내각부는 경기의 기조에 대해서는 담보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을 5개월째 유지

□ (전 망)

○ GDP가 4분기에도 소비의 회복으로 소폭의 플러스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나 불확실성 내지는 리스크도 만만치 않음

- 중국 경기의 회복여부가 관건으로, 수출이 증가하지 않으면 설비투자도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음

- 현재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기업수익과 고용의 호조가 중국경제의 감속 영향에 얼마나 버티어낼지가 향후 경기의 관건

○ 다만, 수개월 후 경기를 나타내는 선행지수는 4개월만에 상승함에 따라, 기업들의 재고 소화로 앞으로 생산이 증가할 가능성이 보여 지고 있음

○ 또 12월 18일 각의에서 결정된 3.3조엔(GDP의 약 0.7조%)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의 경기부양효과가 2016년 2월 이후에는 본격화 될 전망

<GDP>

- '15.3분기 GDP 성장률 연율 1.0%로 크게 상향 수정
- 12월 8일 발표된 2015.3분기 GDP 성장률 2차 속보치는 1차 속보치 연율 -0.8%에서 1%로 크게 상향수정
 - 이에 따라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은 피할 수 있게 되었으나 소비와 수출의 회복력은 여전히 약함
- 상향수정의 최대요인은 설비투자가 1차 속보치의 전기비 1.3% 감소에서 0.6% 증가로 크게 반전된 점임
 - 도소매업 및 임대업, 정보 통신기계 등을 중심으로 신규 입점과 리스자산 구입, 공장의 생산능력 증강을 위한 투자가 크게 증가
- 반면, GDP의 60%를 점하는 소비는 1차 속보치 0.5% 증가에서 0.4% 증가로 소폭 하향수정
 - 임금소득은 증가했으나 증가폭이 전기비 0.7%로 적은데다, 엔저와 기후불순 등으로 생선·야채·가공식품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소비가 억제
- 실질수출도 전기비 2.7% 증가했으나 중국경제의 감속영향으로 증가세는 약한 편
 - 고품질제품의 수출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부가가치 기준으로 본 수출은 개선되었으나 국내 생산과 고용증가로 직결되지는 못함
- 3분기 GDP성장률의 상향수정에 기여한 또 하나의 요인은 재고로서, 3분기에는 민간재고의 기여도가 -0.2%로 1차 속보치의 -0.5%에서 축소됨

< 일본의 실질GDP 성장률(%) >

구 분	2013	2014	2014				2015		
			1-3월	4-6월	7-9월	10-12월	1-3월	4-6월	7-9월
전기비			1.2	△1.9	△0.7	0.5	1.1	△0.1	0.3
전기비연율	1.6	△0.1	5.0	△7.2	△2.8	1.8	4.4	△0.5	1.0
전년동기비			2.7	△0.3	△1.5	△1.0	△1.1	0.7	1.6

자료: 내각부, (p)는 2차 속보치

<국내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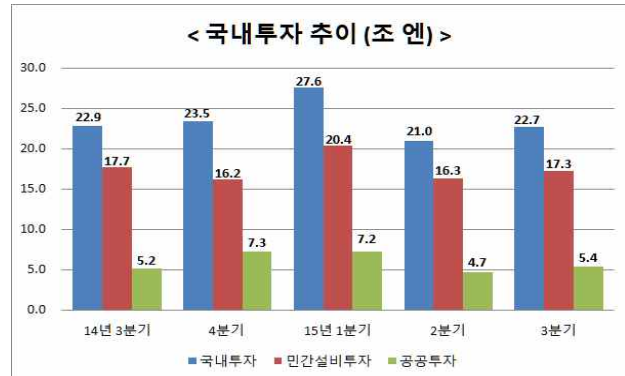
□ ‘15.3분기 국내투자 22.7조원으로 GDP의 18.6%

○ ‘15.3분기 국내투자(민간설비투자+ 공공투자:명목기준)규모는 전기비 12.0% 증가한 22.7조원으로 GDP의 18.6%

□ (민간설비투자)

○ ‘15.3분기 민간설비투자는 명목기준으로 전기비 9.5% 증가한 17.3조원, 국내투자의 76.2%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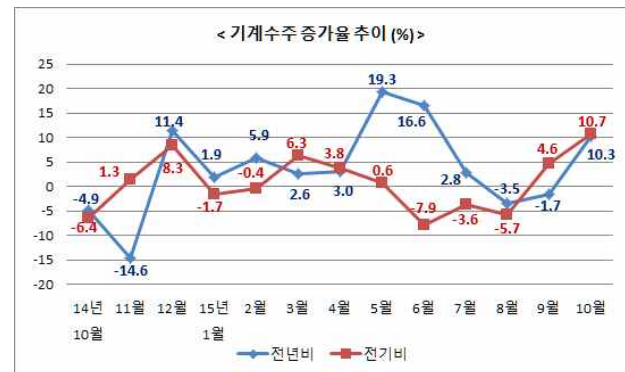
○ 최근 예상 밖의 중국경제의 감속으로 기업들의 설비투자 보유 움직임이 확산



자료 : 내각부

○ 그러나 일본은행의 12월 단기경제관측 조사에 의하면 2015년도 대기업/전산업의 설비투자계획은 전년도 대비 10.8% 증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음

- ‘15.10월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기계수주액(선박, 전력을 제외한 민간수요)이 전월비 10.7% 증가함에 따라, 일본 내각부의 투자기조 판단도 담보에서 회복으로 상향수정



자료 : 경산성, 내각부

○ 또 최근 관민대화에서 경단련이 법인세 감세의 가속화 등을 조건으로 10조 원 규모의 설비투자 증가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등 설비투자 활성화에 낙관적인 분위기가 조성

□ (공공투자)

○ ‘15.3분기 공공투자는 명목기준으로 20.6% 증가한 5.4조원으로 국내투자의 23.8%를 차지

○ 다만 ‘15.3분기에 0.6%의 소폭증가에 그쳤던 실질공공투자도 3.3조원 규모의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이 결정됨에 따라 향후 증가폭이 커질 전망

<소비자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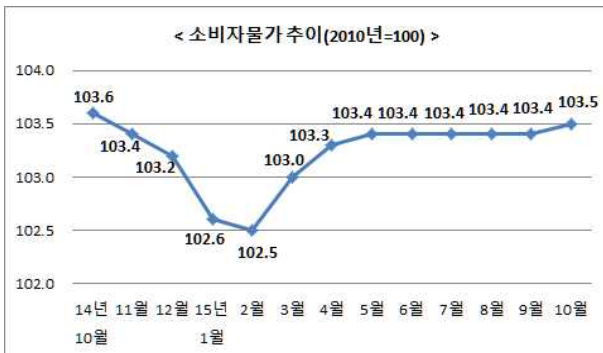
□ '15.10월 소비자물가 5개월만에 상승

- '15.10월 소비자물가지수(생선·식품을 제외한 코어 CPI)는 전월과 같은 103.5로 5개월만에 전월비 0.1% 상승
 - 그러나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1%
 - 유가하락의 영향으로 전기 및 가스요금 등 에너지 관련 품목의 가격하락이 전년동기비 물가하락의 주된 원인
 - 일본 총무성은 에너지 관련 품목을 제외하면 소비자물가가 상승기조에 있다고 분석
- 앞으로 엔저진행을 배경으로 식료품 가격의 상승경향이 지속되는 외에, 내수의 완만한 회복으로 소비자물가는 견조세를 유지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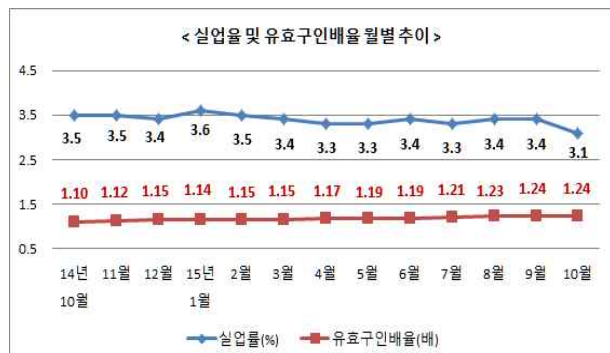
<실업률>

□ 완전실업률 20년만의 최저 수준

- '15.10월 완전 실업률은 3.1%로 전월비 0.3%p의 큰 폭으로 개선됨에 따라, 1995년 7월 이후 20년 3개월만의 최저 수준
 - 특히 여성 실업률이 0.4%p의 큰 폭으로 감소함으로써 실업률 저하에 기여
 - 의료복지 등 비제조업 분야의 취업자 수는 증가한 반면, 제조업 분야의 취업자 수는 8개월 연속 감소
- 유효구인배율도 상승세 지속
 - 15.10월 유효구인배율은 1.24배로 전월과 같은 수준
- 일본 정부는 앞으로도 고용사정의 개선경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특히 고령화를 배경으로 수요가 높은 의료·복지 분야의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



자료 : 총무성



자료 : 후생노동성

2. 무역수지 2개월 만에 적자

□ (총 합) 무역수지 2개월 만에 적자로 환원

- ‘15.11월 무역수지는 3,797억 엔 적자로 2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섬
 - 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중국경제의 감속을 배경으로 한 큰 폭의 수출 감소가 적자 반전의 주된 원인
 - 對 중국 무역적자는 전월의 5,396억 엔에서 5,914억 엔으로 확대된 한편, 對 미국 무역흑자는 전월의 6,662억 엔에서 5,698억 엔으로 축소

< 2015년 11월 일본의 수출입 (조엔, %) >

	2015.10월			2015.11월			2015.1-11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기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수 출	6.5	-2.1	2.0	6.0	-3.3	-8.6	69.3	4.7
수 입	6.4	-13.4	-1.5	6.4	-10.2	-1.1	72.3	-7.8
수 지	0.1	-	-	-0.4	-57.8	-	-3.0	-75.4

자료 : 재무성

□ (수 출) ‘15.11월 수출, 금액·물량 모두 감소

- ‘15.11월 수출은 5조 9,814억 엔으로 전월비 8.6% 감소. 전월의 증가에서 반전
 - 전년 동월비로도 3.3% 감소
 - 수출물량도 전월비 7.5% 감소, 전년 동월대비로는 3.1% 감소
- 당분간 중국경제의 감속 등 리스크는 상존하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 등의 경기회복으로 수출은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
- 수출액 기준으로 5대 수출 품목은 자동차, 반도체 등 전자부품, 자동차부품, 철강, 원동기 순으로 전월과 변함이 없는 가운데, 자동차를 제외하고는 모두 수출이 감소
 - 반도체 등 전자부품의 수출감소폭이 전월비 -14%로 가장 큼
 - 자동차는 전월비 0.4% 증가

< 2015년 11월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출 (억 엔, %) >

순위	품목	2015.10월			2015.11월			2015.1-11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1	자동차	11,207	10.4	1.7	11,252	19.0	0.4	110,384	11.5
2	반도체 등 전자부품	3,435	0.8	-4.9	2,954	-11.1	-14.0	36,103	8.1
3	자동차부품	3,085	-4.4	3.8	2,763	-1.3	-10.4	31,711	0.7
4	철강	2,864	-17.3	-0.9	2,585	-18.4	-9.7	33,927	-5.3
5	원동기	2,205	-3.5	2.5	2,007	-6.4	-9.0	23,680	3.4

자료 : 재무성

- 주요 수출상대 지역·국가별로는 미국이 수출상대국 순위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모두 수출이 전월보다 감소
 - 중국경제의 감속영향 의한 철강과 화학제품의 국제시황 악화가 수출 감소의 주된 요인
 - 한국에 대한 수출 감소폭이 -12.4%로 가장 크며, 이어 중국, ASEAN, EU, 미국, 대만 순

< 2015년 11월 일본의 주요 지역·국가별 수출 (억 엔, %) >

순위	국가	2015.10월			2015.11월			2015.1-11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1	미국	13,482	6.3	5.4	12,329	2.0	-8.6	138,732	13.2
2	중국	11,846	-3.6	6.3	10,576	-8.1	-10.7	120,730	-0.3
3	ASEAN	9,796	-4.3	2.3	8,808	-6.8	-10.1	106,778	6.4
4	EU	7,189	5.4	5.4	6,476	9.5	-10.0	72,448	5.5
5	한국	4,392	-8.0	0.8	3,849	-20.2	-12.4	49,081	-0.9
6	대만	3,771	-1.6	4.4	3,562	1.3	-5.5	40,949	6.7

자료 : 일본 재무성

□ (수 입) '15.11월 수입도 금액·물량 모두 증가

- '15.11월 수입은 6조 3,611억 엔으로 전월비 1.1% 감소
 - 전년 동월비로는 유가하락으로 감소폭이 -10.2%로 전월비보다 큼
 - 수입물량도 전월비 0.4% 감소, 전년 동월비로는 1.6% 증가
 - 경기부진이 수입물량 감소의 주된 요인

○ 수입액 기준으로 5대 수입 품목은 원유, 액화천연가스, 의약품, 통신기, 의류·동부속품, 순으로 전월과 비교하여, 의약품이 통신기와 의류·동부속품을 밀어내고 3위로 부상

- 수입 증가품목 중에서는 의약품의 수입증가폭이 23.2%로 가장 큼
- 수입 감소품목 중에서는 통신기의 수입감소폭이 -21.7%로 가장 큼

< 2015년 11월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입 (억 엔, %) >

순위	품목	2015.10월			2015.11월			2015.1-11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1	원유	5,475	-49.2	-14.1	5,769	-40.9	5.4	70,464	-44.8
2	액화천연가스	3,570	-42.4	-14.2	3,794	-41.5	6.3	47,465	-32.7
3	의약품	2,742	43.7	40.6	3,377	100.1	23.2	26,435	29.0
3	통신기	3,429	-1.6	-3.7	2,685	-30.4	-21.7	23,897	-7.8
4	의류·동부속품	3,150	-7.3	-19.3	2,679	5.1	-15.0	28,236	-5.5

자료 : 일본 재무성

○ 주요 수입상대 지역·국가별로는 중국이 수입상대국 순위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EU와 호주로부터의 수입만이 증가

○ 아세안으로부터의 수입감소폭이 -7.9%로 가장 크며 이어 중국, 미국, 한국 순

-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전월비 2.1% 감소

< 2015년 11월 일본의 주요 지역·국가별 수입 (억 엔, %) >

순위	국가	2015.10월			2015.11월			2015.1-11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1	중국	17,242	-5.2	-6.5	16,490	-5.8	-4.4	161,984	-7.2
2	ASEAN	9,961	-1.2	2.5	9,175	-11.1	-7.9	98,947	-11.1
3	EU	7,665	8.7	13.6	8,258	21.0	7.7	70,798	-5.4
4	미국	6,820	1.0	10.5	6,631	6.1	-2.8	61,622	-10.5
5	호주	3,104	-23.9	-4.3	3,325	-12.6	7.1	35,279	-23.3
8	한국	2,552	-16.6	-2.4	2,499	-18.3	-2.1	26,990	-16.2

자료 : 일본 재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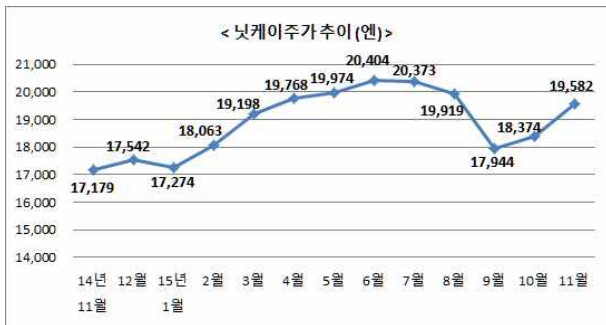
3.엔저 · 저금리, 주가는 하락세

□ (주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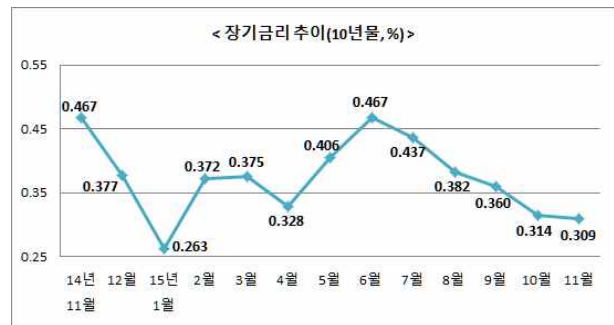
- ‘15.11월 평균 주가는 전월비 6.6% 상승한 19,582엔
 - 12월 들어서는 미국과 유럽의 주가하락 영향으로 하락세로 반전, 12월 21일 기준 18,916엔

□ (금 리)

- ‘15.11월 평균 10년 장기국채 금리는 전월비 1.6% 하락한 0.309%
 - 12월 들어서는 0.33%까지 상승한 이후, 세계경제의 불투명한 전망 등으로 안전자산인 일본국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하락(국채가격의 상승), 12월 21일 기준 0.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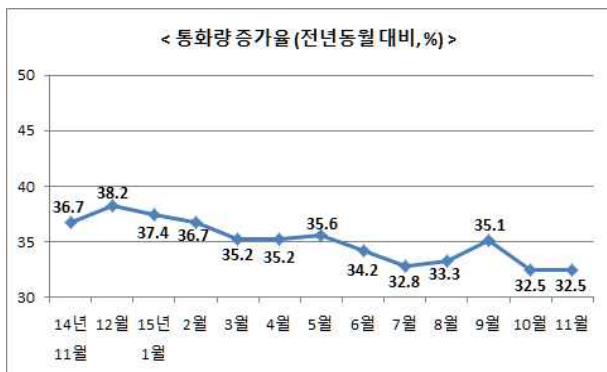
자료 : 일본경제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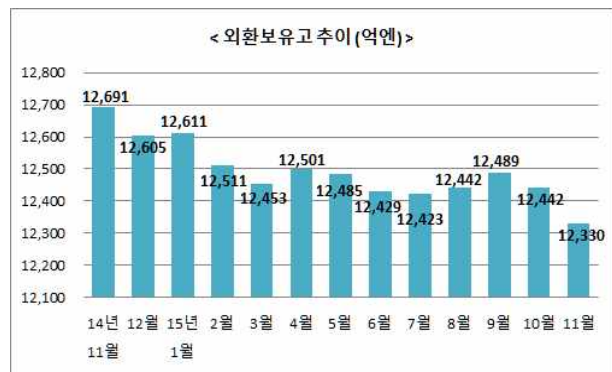
자료 : 일본상호증권

□ (통화량)

- ‘15.11월 본원통화(머니터리베이스 기준), 통화량증가율은 일본은행의 자산매입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전년 동월 대비 3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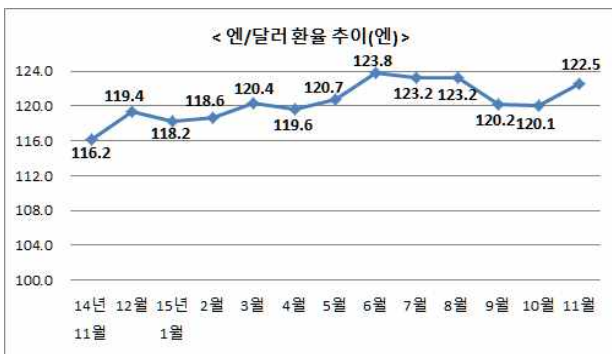
자료 : 일본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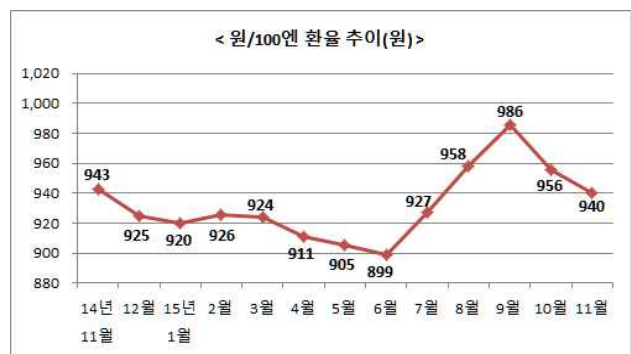
자료 : 재무성

□ (환 율)

- ‘15.11월 엔화의 대미달러 환율평균치는 전월비 2.0% 상승한 122.5엔(엔저)
- 12월 들어서는 엔저세가 약화되었으나 12월 17일 미국 FOMC의 금리인상 결정으로 엔저세를 회복, 12월 18일 기준 121.3엔
- 엔·달러 환율의 변동 폭에 관건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미일의 금융정책인데, 12월 17일 미국 FOMC의 금리인상 결정에 이어 2016년 3월에 재인상, 그리고 일본의 추가금융완화가 이루어진다면 125엔-130엔 엔저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앞으로 미국의 금리인상이 완만한 속도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 한편, 일본정부나 일본은행이 추가금융완화를 서두르지 않고 있고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가 확대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125엔대 이상의 엔저 가능성은 적음
- ‘15.11월 엔화의 대 원화 환율 평균치는 100엔당 940원으로 전월의 956원에 비하여 1.7% 엔저·원고



자료 : 일본은행



자료 : 한국은행

4. 해외직접투자 큰 폭으로 증가 반전

□ (동향) 투자규모가 큰 미국에 대한 투자급증이 크게 기여

○ '15년 10월 해외직접투자액은 16,619억 엔으로 전월비 34.2% 증가

<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동향 (국제수지 기준, 억 엔, %) >

	2013	2014	2015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금 액	131,946	125,929	20,757	6,223	11,399	13,457	12,385	16,619	
증가율	전기비	34.9	-4.6	107.1	-70.0	83.2	18.1	-8.0	34.2
	전년동기비	34.9	-4.6	177.1	-11.4	39.6	112.5	78.4	61.3

자료 : 일본 재무성

□ (지역별) 對 미주 투자는 증가한 반면, 對 유럽·아시아 투자 감소

○ 對 미국 투자는 전월비 121.1% 증가

○ 아시아 지역에 대한 직접투자는 56.4% 감소

- 對 중국에 투자는 전월비 27% 증가
- 對 한국 투자는 -409억엔(투자철수 등)

< 일본의 주요 지역·국가별 해외직접투자 (국제수지 기준, 억 엔,%)>

	2014년		2015.9월			2015.10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대세계	125,939	-4.6	12,385	-8.0	78.4	16,619	34.2	61.3
아시아	37,617	-4.3	3,993	-6.2	4.1	1,741	-56.4	-51.1
중 국	7,150	-19.3	707	8.6	1.3	898	27.0	-3.0
한 국	3,328	3.7	186	151.3	-38.6	-409	-	-
북 미	46,264	1.2	5,292	-3.7	390.5	11,564	118.5	52.7
미 국	44,365	3.3	5,126	-2.2	416.7	11,338	121.1	50.7
중남미	7,710	-22.1	305	-78.4	-75.9	549	80.0	-11.7
유 럽	26,310	-16.7	2,277	18.5	505.6	2,188	-3.9	-45.0
대양주	5,963	1.2	467	55.7	171.5	211	-54.8	-54.0
중동	527	-	39	-59.8	-64.9	117	200.0	154.3
아프리카	1,539	205.4	101	-	-3.8	250	147.5	83.8

자료 : 일본 재무성

□ (특이점)

○ 2015년 들어 일본기업의 해외기업 M&A가 가속화, 2015년 11월 9일까지의 시점에서 매수총액이 10조 44억 엔으로 9년 만에 과거 최고를 갱신

- 해외 성장시장을 겨냥한 금융 및 물류 관련 일본 내수기업들의 공격적인 투자와 대형 M&A, 엔저에 따른 엔화환산 금액의 증가가 매수액 증가로 이어짐

III. 일본의 주요 정책

1. 일본경제 전망*

* 이 자료는 이토추경제연구소가 2015년 11월 27일 발표한 『일본경제정보(2015년 11월호)』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① 2015년

- 2015년 일본경제는 연초 단계에서는 유가하락과 엔저로 고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봄, 여름에 걸쳐 이후 경기가 부진
- 2015년 경기침체의 원인은 소비, 설비투자, 수출 등 주요 수요항목이 모두 약세를 보인 가운데, 특히 소비가 복합적인 요인(중소기업의 임금상승 부진, 기후불순, 내구 소비재의 소비감소)으로 인하여 부진
- 일본경제가 경기후퇴국면으로 진입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10월 이후에 TPP 타결, 新 아베노믹스로 불리는 제 2단계의 아베노믹스 발표, 그리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이 경기회복의 큰 호재로 작용할 전망
- 대외경제환경면에서는 유가하락과 중국경제의 감속이 이어지는 가운데 12월 17일 미국 FOMC의 금리인상 결정
- 앞으로 일본경제는 소비와 수출이 회복되는 가운데, 설비투자도 정상을 되찾아 2015년 10-12월에도 GDP가 소폭이나마 플러스 성장을, 그 후에는 완만하면서도 서서히 성장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임
- 그 결과, 2015년도 실질 GDP성장률은 2분기 연속 마이너스성장으로 출발했으나, 2014년도 후반에 증가율을 높인 효과도 있어, 전년도 대비 소폭의 플러스 성장을 확보할 전망

② 2016년 이후

1) 주요 정책변수

□ 추가경정예산 편성

- 일본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전년도 예산잉여분(약 1.6조엔)외에 2015년도 세수증가분과 예산감축분 등을 재원으로, 3.3조엔(GDP의 약 0.7조엔)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12월 18일 각의 결정)
 - 구체적으로는 아베정권의 새로운 정책테마인 「1억총활약 사회」 실현을 위한 간병시설 정비와 인재육성 외에, TPP 발효에 대비한 농업대책, 저연금수급자에 대한 급부금, 재해복구비 등을 포함
- 현시점에서 GDP성장률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시설비나 공공사업비(재해복구)의 누적액이 공공투자를 끌어올리는 외에, 인재육성이나 급부는 가계소득의 증가를 통하여 개인소비를 끌어올리는데 기여할 것임
 - 다만 추가경정예산은 2016년 정기국회에서 심의되기 때문에 빨라도 1월 중순에나 통과되어 본격적인 효과는 2월 이후에나 나타날 전망

□ 업계에 대한 일본정부의 임금인상 및 설비투자 확대 요청

- 11월 5일의 「미래투자를 위한 관민대화」에서 아베 총리는 산업계에 임금인상과 설비투자 확대를 요청
 - 이를 반영한 26일의 관민대화에서는 경단련 사카키바라 회장이 법인세율 인하와 노동규제 완화, 연구개발감세 확충 등을 조건으로, 2018년도 설비투자를 2015년도 대비 10조엔 정도 늘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

□ 금융완화의 보완책과 추가금융완화

- 한편, 일본은행은 경기침체를 인식하면서도 현 금융정책을 계속하는 경우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할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유지하고 있음
- 일본은행은 12월 18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어, 현행 금융완화를 보완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
 - 상장투자신탁(ETF)구입액을 현재의 연간 3조엔에서 3,000억엔 확대하는 외에, 구입하는 국채의 평균잔존기간도 늘리는 한편, 금융완화의 효과를 침투시키기 위해 대출지원제도도 연장(연간 80조엔의 자금공급규모는 유지)
- 최근 엔저에 의한 물가상승압력이 서서히 저하되고 있고 최근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가져온 수급악화의 영향도 서서히 나타남에 따라, 물가상승 속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음

- 나아가 2016년도 춘투 임금인상률은 2015년도를 상회하더라도 소폭에 그쳐, 임금상승 속도가 물가를 끌어 올릴만큼 가속되지 않을 전망
-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일본은행은 2016년도 후반 디플레이션 탈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추가완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시기는 2016년 봄경이 될 것으로 전망

□ 2017년 소비세 인상 전 가수요

- 2017년 4월 소비세 인상(8%→10%)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증세 전 가수요가 2016년도 후반의 소비와 주택투자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임.

2) 엔화환율 변수

□ 엔저 기조는 계속되나 속도는 완만

- 12월 17일 미국 FOMC에서의 금리인상이 결정됨에 따라 엔저 기반이 다져져 달러당 123엔 전후로 추이하고 있음
- 앞으로 일본에서는 추가금융완화가 계속될 것인 반면, 미국에서는 12월 금리인상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엔저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보임
 - 다만, 중동 등에서 지정학적인 리스크나 일본의 경상수지흑자 확대가 엔고압력으로 작용하기 쉬운 점에 더하여, 중국이나 유럽 등 해외금융시장의 혼란, 일본은행의 추가금융완화 보류 등의 불투명한 요인도 남아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엔저가능성을 상정하기는 어려움
- 따라서 2016년 엔화환율은 기조로서는 완만한 엔저가 될 것이나, 일시적으로 엔고로 반전될 국면도 있어, 평균적으로 보면 엔저진행속도는 매우 완만할 것임

3) GDP

□ 수출은 회복

- 수출은 가장 기본적인 요인인 해외수요와 환율동향 모두 GDP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앞으로 회복이 기대되고 있음

- 해외수요면에서는 미국 경제가 견조를 지속하고 있고, 유럽경제도 테러 등의 리스크 요인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유로화 가치의 하락으로 완만한 확대기조를 유지하는 등 선진국 경제는 전체적으로 견조를 유지
- 신흥국들도 중국경제가 제고조정외 진전으로 바닥권에 들어가고, 아세안 경제도 미국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의 혼란을 소화하면서 서서히 본래의 성장페이스를 되찾는 등, 일본과의 경제관계가 긴밀한 지역의 상황은 호전될 전망
- 환율은 전술한 바와 같이 최소한 엔고의 진행은 피할 수 있을 것임

□ 설비투자는 일단 정상을 회복

- 설비투자는 2015년도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형태로 2016년도에 들어가면서 서서히 정상을 되찾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2017년 소비세 인상후 경기의 불투명성, 낮은 기업의 중장기 기대성장률 등에 비추어, 기업들의 정상을 되찾는 움직임은 단기적인 것에 그칠 것임.
- 2015년도에 일부 보류되었던 설비투자가 2016년도에는 실행되어 증가할 것이나 2017년도는 다시 감소로 반전될 것으로 예상

□ 경기는 회복되더라도 소비세 인상전 디플레이션 탈출 어려움

- 2016년도는 2017년 4월로 예정된 소비세 인상전 가수요에 의해 소비와 주택투자의 증가, 보류된 설비투자의 실행, 수출의 회복 등으로 GDP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 그러나 2017년도는 가수요의 반동으로 소비세 인상에 의한 경기위축에 가세하여 소비와 주택투자가 감소하고 설비투자도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으로 일단 조정국면으로 진입함에 따라, 실질 GDP성장률은 거의 제로 수준으로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
- 마이너스 성장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출확대가 계속되어야 하는데, 세계경제와 환율 등 외부환경 여하에 따라서는 마이너스 성장가능성도 있음

□ 물가

- 이러한 가운데 소비자물가는(생선식품 제외) 앞으로 유가하락의 영향이 사라져 2014년 10월의 전년동월대비 -0.1%에서 플러스로 전환, 서서히 상승률을 높일 것으로 예상

- 한편, 현 경기침체가 수급의 완화(수급갭 확대)를 통해, 물가하락압력으로 작용, 전년비 엔저속도가 둔화하고 있기 때문에 엔저에 따른 가격전가 움직임도 서서히 약해질 것임을 고려하면, 2016년도 후반에도 전년비 1%를 약간 웃도는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
- 소비세 인상후에는 다시 경기침체에 의한 물가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탈출을 선언하기는 어려움

□ 일본정부의 경제전망치

- 한편 12월 22일 발표된 일본정부의 경제전망에서는 경제성장율이 2015년도에는 1.2%, 2016년도에는 더욱 높아져 1.7%에 이를 것으로 전망
- 특히 2016년도의 높은 성장은 설비투자 증가와 임금인상에 의한 소비확대 등 내수주도로 이루어져, 민간경제조사기관들의 평균 경제성장률 전망치 1.5%보다 높은 수준임

<표> 일본정부의 2015, 2016년도(회계년도) 일본정부의 경제전망

구 분	2015년도	2016년도
GDP(실질, 증가율)	1.2%	1.7%
민간소비(실질, 증가율)	1.0%	2.0%
설비투자(실질, 증가율)	2.8%	4.5%
주택투자(실질, 증가율)	2.8%	3.8%
수출(실질, 상품·서비스증가율)	2.1%	4.8%
수입(실질, 상품·서비스증가율)	1.4%	5.2%
소비자물가상승율)	0.4%	1.2%
무역수지(조엔)	0.5	1.9
경상수지(조엔)	18.5	21.7
환율(엔/달러)	122엔	122.6
유가(배럴당 원유수입가격)	52.1달러	44.0달러

자료 : 일본 내각부, 「2016년도 경제전망과 경제재정운영의 기본적 태도」

IV. 한일 경제관계 분석

1. 대일 무역적자 3개월만에 감소

□ (총 합)

- ‘15.11월 대일무역적자는 전월비 384백만 달러 감소한 1,319백만 달러
 - 수출의 감소에도 수입이 크게 감소한데 따른 것임
- 대일 수출의존도, 대일 수입의존도 모두 각각 전월의 4.9%에서 4.6%, 10.5%에서 9.8%로 낮아짐
 - 수출과 수입을 합한 무역의 대일무역의존도는 전월의 7.5%에서 6.8%로 저하

< 2015년 11월 對日 수출입 및 무역수지 (백만달러,%) >

	2015.10월			2015.11월			2015.1-11월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대일 수출	2,147	-25.7	5.1	2,025	-19.0	-5.7	23,524	-21.0
대일 수입	3,850	-16.7	3.9	3,345	-23.0	-13.2	42,148	-14.5
무역 수지	-1,703	-27	41	-1,319	-526	-384	-18,624	-895

자료 : 한국무역통계

□ (대일 수출)

- ‘15. 11월 대일 수출은 전월비 5.7% 감소, 3개월만에 감소세로 반전
 - 동 기간 중 총수출 증가율 2.3%, 일본의 수입증가율 -1.1%에 비하여 대일수출이 크게 부진

	대일 수출증가율(%)		총수출증가율(%)		일본의 수입증가율(%)	
	전년동기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전월비
2015.10월	-25.7	5.1	-15.9	-0.1	-13.4	-1.5
2015.11월	-19.0	-5.7	-4.8	2.3	-10.2	-1.1
2015.1-11월	-21.0	-	-7.4	-	-7.8	-

○ ‘15.11월 대일 수출 10대 품목은 전월과 비교하여 기계요소공구·금형 대신에 기초 산업기계가 포함된 가운데 광물성연료, 기초산업기계, 정밀화학제품, 금속광물 등 3개 품목만이 대일수출이 증가

- 대일 수출 증가품목 중에서는 기초산업기계의 증가폭이 22.7%로 가장 크며, 이어 정밀화학제품, 금속광물, 광물성 연료 순으로 증가폭이 큼
- 대일 수출 감소품목 중에서는 산업용 전자제품의 감소폭이 -15.1%로 가장 크고 이어 철강제품, 전자부품, 수송기계, 석유화학제품, 농산물 순으로 감소폭이 큼

< 2015년 11월 대일수출 10대 품목 (백만달러, %) >

순위	품목명	2015.10월			2015.11월			2015.1-11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총계	2,147	-25.7	5.1	2,025	-19.0	-5.7	21,508	-21.2
1	광물성연료	283	-48.5	-8.1	291	-35.5	2.8	3,233	-47.0
2	철강제품	257	-23.2	4.0	226	-17.1	-12.1	2,718	-26.4
3	전자부품	181	-8.9	0.6	160	-16.6	-11.6	2,083	-5.8
4	산업용전자제품	159	-48.9	42.0	135	-51.5	-15.1	2,067	-20.5
5	정밀화학제품	114	-9.2	-6.6	133	3.3	16.7	1,334	-4.1
6	수송기계	111	-14.7	11.0	107	17.8	-3.6	1,121	-4.4
7	석유화학제품	86	-42.8	-14.9	83	-35.6	-3.5	1,202	-21.3
8	기초산업기계	66	-15.2	4.8	81	23.1	22.7	717	-5.5
9	농산물	82	-18.3	10.8	81	-11.3	-1.2	891	-11.7
10	금속광물	78	-23.1	-17.0	81	-15.8	3.8	957	-6.6

자료 : 한국무역협회

□ (대일 수입)

○ '15.11월 대일 수입도 전월비 13.2% 감소

- 총수입의 감소폭 -7.4%에 비하여 대일수입의 감소폭이 큼

	대일 수입증가율(%)		총수입증가율(%)	
	전년동기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전월비
2015.10월	-16.7	3.9	-16.6	6.4
2015.11월	-23.0	-13.2	-17.6	-7.4
2015.1-11월	-14.5	-	-16.7	-

○ '15.11월 대일 수입 10대 품목은 전월과 변함이 없는 가운데 일부 품목의 순위만 바뀐 가운데, 수송기계를 제외한 모든 품목의 대일수입이 감소

- 9개 대일 수입품목 중 정밀기계의 감소폭이 -25.3%로 가장 크고 이어 철강제품과 기초산업기계도 20% 이상의 감소폭을 보이는 등, 자본재와 소재류의 대일수입감소가 두드러짐

- 유일한 대일수입증가품목인 수송기계의 대일수입은 전월비 8.4% 증가

< 2015년 11월 대일 수입 10대 품목 (백만달러, %) >

순 위	품목명	2015.10월			2015.11월			2015.1-11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총 계	3,850	-16.7	3.9	3,345	-23.0	-13.2	42,148	-14.5
1	전자부품	502	-21.1	-15.0	421	-23.4	-16.1	5,558	-5.7
2	철강제품	487	-29.1	13.3	365	-37.3	-25.1	5,293	-30.7
3	석유화학제품	347	-34.0	0.0	334	-36.2	-3.7	4,404	-21.8
4	정밀화학제품	347	-3.5	10.9	312	-6.2	-10.1	3,513	-10.8
5	기초산업기계	322	2.3	17.9	252	-30.7	-21.7	2,937	-11.4
6	산업용전자제품	211	-10.9	-5.4	208	0.6	-1.4	2,350	-9.5
7	수송기계	179	-19.4	-16.7	194	-7.6	8.4	2,221	-3.4
8	플라스틱제품	194	-18.8	2.1	171	-16.9	-11.9	2,127	-18.4
9	산업기계	205	6.9	22.8	159	-3.3	-22.4	1,899	-12.2
10	정밀기계	210	11.8	38.2	156	-53.7	-25.3	2,428	4.3

자료 : 한국무역협회

2. 3분기 일본인 직접투자 크게 감소

□ (동향) '15.3분기 일본의 對韓직접투자 큰 폭의 감소로 반전

- '15.3분기 일본의 對韓 직접투자는 222백만 달러로 전기비 67.5% 감소
 - 동 기간 중 전체 외국인투자의 감소폭 17.2%를 크게 상회
 - '15.1~3분기 누계로도 전년동기비 27% 감소
 - 건수로도 전기비 20.2% 감소
 - 전분기의 급증(136.7%)반작용도 급감 반전에 영향

< 일본의 대한 직접투자 실적 (신고기준, 건, 백만달러, %) >

	2013년		2014		2014.4분기		2015.2분기		2015.3분기		2015.1-3분기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일본의 대한투자	447 (-17.7)	2,690 (-40.8)	352 (21.3)	2,488 (-7.5)	103 (45.1)	850 (73.8)	84 (-0.2)	684 (136.7)	67 (-20.2)	222 (-67.5)	236 (-5.2)	1,195 (-27.0)
전체 외국인투자	2,607 (-9.1)	14,548 (-10.7)	2,463 (-5.6)	19,003 (30.6)	746 (32.5)	4,185 (-6.7)	742 (33.0)	5,316 (49.5)	624 (-15.9)	4,399 (-17.2)	1,924 (12.1)	13,270 (-11.1)

주 : ()내는 전기비 증가율,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직접투자통계

□ (한·일 기업간 협력 사례)

- 일본 미쓰비시전기와 미쓰비시상사가 한국 미쓰비시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인천경제자유구역에 각각 80%, 20%의 지분으로 총 305억원을 투자
 - 일본 미쓰비시전기를 모기업으로 하고 있는 한국 미쓰비시엘리베이터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엘리베이터 제조시설 및 글로벌 R&D 센터 건립을 위한 투자 계약을 체결(2015.12.15. 인천뉴스)
- 친환경 소재 바이오플라스틱 분야의 세계적인 선도기업인 일본의 ERI사가 1,500만 달러의 사업비를 투자해 2015년 말부터 바이오플라스틱 생산시설을 건립할 계획(2015.10.26. 한국일보)

□ (시사점)

- 최근 엔저를 배경으로 중국 등 해외투자기업들이 일본 국내로의 유턴사례가 늘고 있어 그 파급영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차별화된 대일 투자유치 노력이 필요
 - 최근 일본기업들의 영업실적 개선에 따른 투자여력 확대도 대한투자의 플러스 요인

V. 참고 자료

1. 주요기관 연구보고서(2015.11월~2015.12월)

□ 국내 기관

- 『일본, 공유경제가 뜬다!』 KOTRA, 2015년 12월15일
http://www.globalwindow.org/GW/global/trade/all-all/overseamarket-detail.html?BBS_ID=10&MENU_CD=M10080&UPPER_MENU_CD=M10003&MENU_STEP=2&ARTICLE_ID=5033915
- 『일본 기업, 인도경제의 활력에 주목하여 인도 진출에 적극적』 산업연구원, 2015년 12월10일
http://www.kiet.re.kr/kiet_web/main.jsp?sub_num=12&ord=0&recom=2112&pageNo=2&state=view&idx=51837
- 『제6차 한·일·중 정상회의 주요 내용과 향후 협력방향: 통상·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5년 12월9일
<http://www.kiep.go.kr/skin.jsp?num=185664&mode=view&field=&text=&grp=publication2&bid=Pub0301&ses=USERSESSION&psize=10>
- 『[일본연구] 일본의 첨단산업 R&D활동과 한일간 기술협력』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2015년 12월9일
<http://www.kjc.or.kr/jpinfo/research.html?bid=issuebrief&qry=read&no=43612>
- 『[일본연구] 농업부분 생존을 위한 한·일 협력』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2015년 12월4일
<http://www.kjc.or.kr/jpinfo/research.html?bid=issuebrief&qry=read&no=43611>
- 『[동향분석] 최근 일본 경제금융 상황에 대한 평가』 한국은행, 2015년 12월3일
<http://www.bok.or.kr/contents/total/ko/boardView.action?boardBean.brdid=122126&boardBean.menuid=2229&boardBean.rnum=2&menuNaviId=2229&boardBean.cPage=1&boardBean.categorycd=0>
- 『Japan Insight 74호 : 일본산업의 IoT 대응 사례』 LG경제연구원, 2015년 11월30일
<http://www.lgeri.com/publication/report/list.asp>
- 『독일 재생에너지정책과 지속가능발전전략이 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점』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2015년 11월27일
<http://www.kjc.or.kr/jpinfo/research.html?bid=issuebrief&qry=read&no=43607&no=43607>

□ 일본 기관

- 『인프라 수출을 발판으로 한 효과적인 對 신흥국·개도국 사업진출책』 노무라종합연구소, 2015년 12월22일
<http://www.nri.com/~media/PDF/jp/opinion/teiki/region/2015/ck20151203.pdf>
- 『대일직접투자의 현황과 과제』 경제산업연구소, 2015년 12월22일
http://www.rieti.go.jp/jp/columns/s16_0003.html
- 『새로운 기간산업 육성에 기여하는 벤처기업의 창출·육성을 위해: 「일본형 벤처 에코시스템」의 구축』 일본경제단체연합회, 2015년 12월22일
http://www.keidanren.or.jp/policy/2015/118_honbun.pdf
- 『산업정책과 산업집적 : 산업클러스터 계획의 평가』 경제산업연구소, 2015년 12월19일
<http://www.rieti.go.jp/jp/publications/dp/15j063.pdf>
- 『2016년도 세계개정 대강』 KPMG, 2015년 12월19일
<http://www.kpmg.com/Jp/ja/knowledge/article/japan-tax-newsletter/Pages/2016-tax-reform-20151218.aspx>
- 『차세대 제조업에서 보는 지역 이노베이션 방향 : 선진국의 IoT와 모노즈쿠리 융합 전략』 일본종합연구소, 2015년 12월15일
<http://www.jri.co.jp/MediaLibrary/file/report/jrireview/pdf/8585.pdf>
- 『한일은 새로운 경제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인가』 일본종합연구소, 2015년 12월 15일
<http://www.jri.co.jp/MediaLibrary/file/report/rim/pdf/8579.pdf>
- 『세계와 일본의 FTA 일람』 JETRO, 2015년 12월4일
<https://www.jetro.go.jp/world/reports/2015/01/14985ca67be82942.html>
- 『민간기업의 이노베이션 현황 : 연구개발·이노베이션 소위원회 자료』 경제산업성, 2015년 12월 3일
http://www.meti.go.jp/committee/sankoushin/sangyougijutsu/kenkyu_kaihatsu_innovation/pdf/01_s01_00.pdf
- 『「신산업」 정책과 신 「산업정책」』 경제산업연구소, 2015년 11월26일
<http://www.rieti.go.jp/jp/publications/pdp/15p020.pdf>
- 『종합적인 TPP관련 정책 대강』 일본내각부, 2015년 11월 26일
http://www.maff.go.jp/j/kanbo/tpp/pdf/taiko_hontai.pdf
- 『앞으로 일본이 對 아시아 투자는 증가할 수 있을 것인가』 미즈호종합연구소, 2015년 11월 26일
<http://www.mizuho-ri.co.jp/publication/research/pdf/today/rt151124.pdf>

2. 주요 경제 일정

<12월 실적>

일자	주요 내용
1	• 고바야시 경제동우회 대표 간사회견
4	• 고속증식로 몬주 단층 현지조사(원자력규제위원회)
7	• JAXA의 금성탐사선 '아카쓰키호' 금성 궤도 진입, 안착
8	• 3분기 GDP 개정치 발표(전기대비 -0.8%에서 1.0%로 상향 수정, 내각부)
	• 10월 국제수지 발표(재무성)
9	• 원자력규제위원회
	• 도요타자동차 4세대 프리우스 판매
10	• 노벨상 수상식(일본인 수상자 2명, 스웨덴)
11~13	• 아베 총리 인도 방문(11일 정상회담)
15	• 고바야시 경제동우회 대표 간사회견
	• 올해 한자 「安(안)」 발표('14년 「稅(세)」)
15~18	• WTO 공식 각료회의(케냐)
16	• 원자력규제위원회
17	• 미무라 일본상공회의소 대표 회견
	• 11월 무역통계 발표(재무성)
17~18	• 일본은행 정책위원회 금융정책 결정 회의
18	• 구로다 일본은행총재 기자회견
21	• 규제개혁회의(내각부)
22	• 원자력규제위원회
25	• 11월 소비자물가지수 발표(총무성)
	• 11월 유효구인배율 발표(노동성)

< '16년 1월 예정 >

일자	주요 내용
1	• 마이넘버제도 운용 시작
13~15	• 차세대 경영자 교류(나고야)
17	• 한일 고위급 경제교류회의